

고백은 Go Back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 도장처럼 새겨져서 그 고백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첫사랑의 고백은 물론이고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들려 주었던 “애야, 엄마가, 아빠가 너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라던 사랑의 고백 등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만나고 헤어졌던 많은 순간에 들어왔던 고백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 속에 담아 둔 표현되지 못한 고백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생전에 들려 드리고 싶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 갇혀 있는 마음 속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 간에, 교회 교우들 사이에서 말하고 싶었지만, 표현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 고백하지 못한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말해야 하는데 네 앞에 서면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미워져”라며 고백하지 못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내가 미워지는 경험을 하며 “눈치만 살피다가 지나는 한 평생”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기억에 남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민 오기 위해 인천 공항에서 한국을 떠나던 날, 가족들과 많은 교회 선/후배들이 배웅하기 위해 모인 그 곳에서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 후배가 제 손을 꼭 잡고는 “형,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형 덕분이에요. 고마워요.”라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 고백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서로의 모습이 닮아서 친형제처럼 의지하고 함께 기도했었던 그 후배가 자기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함께 삶을 나누어 준 저에게 고맙다던 그 고백과 함께 그 후배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는데 선수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 보면 온통 피조물인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고백뿐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시다가 급기야는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우리 가슴이 다시금 콩닥콩닥 뛰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담아두고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계절이 되면 어떨까요? 가족들에게, 교회의 교우들에게,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가두어 두었던 마음의 고백을 해보시면 어떨런지요? 특별히 지난 주에 나누어 드린 성탄 카드를 통해 교회 교우들에게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성탄의 계절이 그저 즐겁고 신나는 Happy Holiday가 아닌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땅에 가득한 Merry Christmas가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1) **예배** 대강절(Advent)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며 임마누엘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2) **전도의 생활화** 날마다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 3) **새벽예배 / 금요 성령집회**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주요 소식

- 1) 2024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 예배 후에 있습니다.
- 2) **새신자 통합교육** 예배(친교)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 3) **당회원 제자훈련** 매주 금요일 성령집회 후에 있습니다.
- 4) **유초등부, 성탄절 사랑나눔 펀드레이징** 성탄절 사랑나눔을 위해 유초등부의 “꼬마들이 만드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꼬마김밥”을 간식 시간에 판매합니다.
- 5) **성탄축하 예배 “Glory & Peace” (기관 연합)** 12월 24일(주일) 오후 2:30-
- 6) **성탄카드 우편배달서비스 “사랑의 우체통”**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지난 주 주보에 넣어 드린 성탄카드를 작성, 현관에 설치된 우체통에 넣어 주시면 교회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감 12/24일 주일 예배 전)
- 7) **2024 간식/점심 신청자 접수** 2024년도 점심 및 간식 신청자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래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일학교**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

- 1) **교회연합회 연합 성탄예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2월 행사 안내

- 1) **성탄축하 예배 (기관 연합)** 12월 24일 (주일) 오후 2:30
- 2) **성탄카드 우편배달서비스 사랑의 우체통** 12월 24일 (주일)
- 3)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주일) 저녁 10:30-

씨리교회 합심기도

1. 매일 10명의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 합시다.
2. 기도의 300 용사를 세워 주옵소서.
3. 씨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섬기는 사람들

- **원로목사 및 파송선교사** 홍성득 (Sung D. Hong) 목사
- **담임 목사** 권태욱 (Jonathan Kwon) 목사
- **부교역자** 윤은수 목사 (중고등부/청년부), 하선미 전도사(유치부/유초등부)
- **시무 장로** 김향덕, 우종근 • **사역 장로** 박종덕, 조석희 • **협동 장로** 임선중
- **반 주** 김민경

힘들게 일어나 가자!

Arise, come with me!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2:10)

My lover spoke and said to me,
'Arise,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nd come with me. (Song of Songs 2:10)

캐나다장로교
씨리장로교회

15964 88 Ave. Surrey, B.C. V4N 1H5
TEL. 604-581-4911 • www.surreychurch.com

